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인영** · 김진숙*** · 문현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을 아동의 세부적인 경험세계의 조명을 위해 내부 자적 관점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학대 피해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적 사례 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기술과 사례들 간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를 찾아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주제는 7개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가족’, ‘새로운 돌파구 모색’, ‘나보다는 가족을 위한 선택’, ‘가족에게 희망을 걸어봄’, ‘가족의 긍정적 변화’, ‘외딴 섬 같은 존재’, ‘미래를 위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간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었고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가족 내에서 안정을 얻지 못해 외부에서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 이전의 가족경험에서 기대되는 가족의 반응으로 성학대 사건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여 교사나 이웃을 통해 성학대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성학대 피해아동은 가족이 성학대 사건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가족이 아동 편에서기를 바라고 있었다. 성학대 사건 이후 가족들이 변화하기도 하였지만 아동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과 교류가 멀어지기도 하였다.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에 따라 가족에게 돌아갈지 외부에서 생활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성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한 경우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해 필요한 개입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성학대 피해 아동, 가족경험, 질적 사례연구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7275).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kjs324@daum.net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성학대는 아동에게 오랜 기간 동안 심리적 상흔을 남기면서 정신건강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성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 의해 보호와 지지를 받으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부모는 아동에게 양육과 사회화과정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이경남, 2004). 따라서 아동 성학대 문제는 가족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다. 성학대를 당한 아동이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부모가 성학대 위험이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성학대 발생 이후 부모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처럼 성학대 아동의 가족문제를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동 성학대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아동 성학대의 실태 조사와 후유증에 관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유가호, 남정임, 1995; 한인영, 박명숙, 유서구, 류소영, 2008)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연구는 소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연령, 가족구성원, 학력, 생활 수준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가족경험을 살펴보고 있고 부모의 지지(유수진, 2003)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있지만, 가족 간 의사소통, 상호작용 등을 통하여 가족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내적 관점의 이해는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에서부터 시작되므로,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치료에 있어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성학대 문제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선제 되어야 한다. 가족경험은 가족의 생활사건, 양육방식, 개별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경민, 2008). 가족들이 경험한 가족생활사건으로는 부모 사망이나 가출, 부모의 이혼, 경제적인 빈곤 등이 있다. 또한,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계 또는 기능적 단위로 보는 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전귀연, 최보가, 1995).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이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 등을 통해 가족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피해 아동이 경험한 가족의 현상을 가족생활사건과 양육방식뿐 아니라 체계론적 관점에 근거한 다양한 가족의 역동성 및 기능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내부자적 관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적 관점의 조명은 학대받은 아동들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를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성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희박한 편이다(고미영, 2004). 아동의 세부적인 경험세계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적 관점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유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이질적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속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훼손할 수 있다(김태신, 김춘경, 여인숙, 2012; 이근무, 김진숙,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라는 경험을 공유한 이들의 동질성을 인식하면서도 각 사례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례연구에서의 초점은 상황속의 사람에게 있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Yin(2009)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정황적인 조건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구에서 정황적인 조건을 함께 다루려면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성학대 피해아동을 둘러싼 1차적 지지체계인 가족에 대한 이들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질적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가족경험을 가족 생활사건, 가족기능 및 상호작용, 가족 간 역동적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성학대 피해 아동을 주체로 하여 살펴본 연구는 소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 입장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가족의사소통, 상호작용 등을 통한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경험과정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질적 연구로 접근하고자 한다. 가족경험은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므로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관점에서 성학대 사건을 전후로 경험한 가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실천전략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학대 피해 아동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 성학대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학대는 여타 아동학대유형과 달리 아동의 신체에 대한 침탈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독특하고 심각한 심신의 외상을 남긴다(윤혜미, 201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2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을 확인한 결과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학대가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지만 성학대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고 학대 사실이 은밀하게 감춰진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할 수 있다. 대부분 피해 아동이 학대 사실을 성인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미집게 된 성학대가 실제로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오랜 기간 은폐된 채 성학대를 받기 때문에 문제양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성학대 피해 아동은 성학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되거나 성학대 피해 아동이 가해자로부터 비밀유지의 위협을 받아 부모나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하여 고통을 겪게 된다(박혜숙, 2013).

한인영, 이용우, 유서구, 박명숙과 김진숙(2008)에 따르면 성학대 경험 아동의 약 2/3가 여자 아동이었고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에 속하는 비중이 높았고 범죄발생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 피해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성격과 행동에 걸쳐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긴다. 즉 자신감을 상실하고, 가족 및 대인관계가 균형을 잃게 되어 점점 환경으로부터 고립되며 단절된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의 억압, 부정, 해리 등의 방어 행동을 통해 정체성의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채규만, 2004).

성학대 피해 아동은 외상을 내면화하여 위축되고 우울해하거나 외상을 외면화하여 공격적이며 화를 잘 내기도 한다. 또한, 가해자를 피하고자 은둔적인 삶을 선택하고 또래와 부적절한 성적인 놀이를 하고 성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으며 나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이해를 한다(Goodwin, 1988). 박아경(2008)의 연구에서는 성학대 피해로부터 경과기간이 길수록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수록 아동이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학대 피해 아동 가족

아동 성학대 연구는 주로 실태 조사와 후유증에 관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에 관한 연구, 학대를 받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 Pilgrim et al.(2012)은 성학대를 전반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어 생태학적 접근에서 가족을 포함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Clements, Speck, Crane and Faulkner(2004)의 연구에서도 성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체계 기능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Paavilainen, Astedt-Kurko, Paunonen-Ilmonen and Laippala (2001)의 연구 결과에서도 성학대를 포함한 아동 학대를 경험한 가족은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학대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하여 가족생활 사건, 가족기능 및 상호작용, 가족 간 역동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가족생활사건으로 빈곤, 부모의 실직,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신체적 학대, 부부싸움, 부모의 질환 등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생활사건들이 성학대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장화정, 강미경과 신소현(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실직이 높을수록 성학대 경험이 높음을 보고한다. 또한, 친부모보다는 계부모인 경우에 그리고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가정에서 성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Black, Heyman and Slep(2001)은 빈곤할수록, 부모의 직업적 지위가 낮을수록, 한부모 가족, 의붓가족일수록 아동 성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가정폭력이 있을수록 아동 성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MacMillana, Tanaka, Duku, Vaillancourt and Boyle(2013)은 빈곤이 아동 성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빈곤가정의 경우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으로

인해 소년소녀 가장이 되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가 많았다(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 이미화(1999)는 저소득층 지역의 경우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부모의 귀가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방과 후 보호 및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학대와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경제적인 중압감에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자녀에게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Agnew, Matthews, Bucher, Welcher & Keyes, 2008). 이러한 이유로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성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클 수 있다.

또한, 친척에게 성학대 피해를 당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적절한 개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이 해체되어 친척 집에 위탁되어 사는 경우 성폭력 피해를 지속해서 겪으면서 다른 친척들에 의해 성학대 사실이 묵인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남순열, 심창교, 이희숙, 조중신, 2004) 부모의 동거 여부가 아동 성학대 발생 및 경과에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 성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가족 생활사건 요인으로 빈곤,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이혼가족, 가정폭력가족, 부모의 직업이 낮음, 부모의 부재, 모의 질병, 보호자의 알코올중독, 양육 부재, 부부갈등, 약물남용, 사회적 고립, 체벌적 양육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Benedict & Zautra, 1993; Clements et al., 2004; Fleming, Mullen & Bammer, 1997). 이러한 요인들이 바로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양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성학대 사건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에만 주목했고 성학대 사건 발생 이후 아동이 가족 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다.

둘째, 가족기능 및 상호작용도 아동 성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갈등적 가정 분위기와 부정적 양육태도(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어머니와 딸 간 친밀감이 낮을수록(Black et al., 2001), 가족 응집력이 낮을수록, 가족갈등이 클수록(Meyerson, Long, Miranda & Marx, 2002) 아동 성학대 발생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Benedict와 Zautra(1993)는 가족갈등과 부모의 부재가 아동 성학대 발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Fleming, Mullen and Bammer(1997)는 3,95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친족 성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의 부재, 돌봄을 제공해 줄 성인여성의 부재, 알코올 의존 아버지

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비친족 성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 사회적 고립, 어머니의 죽음, 알코올 의존 아버지를 아동 성학대 발생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다. Rasmussen (2013)도 아동 성학대 피해 가족은 양육 포기, 형제자매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어린 자녀의 고립과 같은 유년시절 가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가족 간의 친밀감의 부족이 아동기 성적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Maniglio(2012)는 아동 성학대와 불안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불안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학적 위험 요인으로 가족의 기능 장애를 지적하였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이혼, 부모의 알코올 중독,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가 성학대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Thurston(2005)은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가족 구성원과 성학대 피해 아동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고 양육기술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갈등과 문제에 대한 잘못된 관리, 가족과의 제한된 시간 사용과 같은 긴장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모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참여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지적했지만, 부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부가 자녀에 대해 폭력적이고 제한을 많이 가하는 양육태도를 고수했다고 회상했는데 특히 계부일 경우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했다. 즉, 성학대 피해 아동은 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모 뿐 아니라, 부의 역할도 적절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는 가족의 의사소통도 성학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가족이 성학대의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White, Grzankowski, Paavilainen, Astedt-Kuri and Paunonen-Ilmonen(2003)은 이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의사소통이 아동 성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성학대 발생 가정을 살펴보면 부부 및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에 직접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가족 내에 의사소통 문제가 내재한 경우가 있다(박혜영, 김연옥, 홍강의, 1996).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동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직한 대상이라 여기고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빨리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가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의 후유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gley & Ramsay, 1985).

셋째, 가족 간 역동적 관계는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구성원들의 태도, 정서적 흐름, 사고, 감정, 행동 유형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못했다는 죄책감(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93)을 갖기도 하지만 성학대 피해 아동의 어머니들이 자녀보다 그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녀를 경시하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사용하며, 긍정적이고 이해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Burkett, 1991). 또한, 피해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증상이 자녀의 회복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ewin & Bergin, 2001). 성학대는 피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경우 가족들이 피해자 회복에 중요한 지지기반을 제공해 줄 수 없게 된다(이경은, 김미정, 2011). Burgess와 Holmstrom(1979)은 성학대가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논의될 때, 서로에게 성학대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가하지 않을 때 가족구성원들 간에 상호지지와 상호 이해의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하였다. 가족들은 흔히 성학대 피해 아동에 대하여 과잉보호, 기분전환, 보호적 침묵과 같은 대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데 이는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들 방법은 피해 아동의 재적응과정을 돕기보다 가족들의 무력감을 감소시키는 데보다 치중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Burge, 1983; 이원숙, 1999 재인용). 성학대 사실이 노출되면 부모들은 성학대 사실을 부정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성학대에 대해 그들 스스로 또는 자녀들을 비난하게 된다. 자녀들 역시 부모가 더는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노출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Clements et al., 2004).

III.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하다. 사례연구는 인공물과 같은 다양한 자료원들을 활용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맥락에 대한 사례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인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을 분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 질적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표 1

연구참여 사례의 특성

사 례	성 별	연 령	최초 피해 연령	성학대 가해자	동거 가족	가족특성
A	여	14	11	윗집아저씨	부, 모	수급자. 부는 청각장애 3급. 여관에서 생활함.
B	여	15	8	조부, 사촌오빠	조부, 친오빠	수급자. 부-모는 이혼함. 부는 어릴 때부터 따로 거주하고 있음.
C	여	13	12	모의 남자친구	모	수급자. 부는 3세 때 사망함. 모 지체장애 2급.
D	여	16	15	교회 주일학교 교사	조모, 부, 여동생	저소득. 부-모는 이혼함. 가족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에 있는 E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모집하였

다. 모집된 성학대 피해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1~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회 면접시간은 60분~90분이었다. 면접이 끝난 후 후속 면접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아동에게 후속 면접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였다. 연구참여 사례에 대한 정보는 표 1에서 제시하였다.

아동에 대한 심층면접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 사례관리자 인터뷰, 기관에서 피해 아동의 사례에 개입하며 작성한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에 참고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는 아동에 대한 심층면접 진행 시 어머니가 동행한 경우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사례관리자 인터뷰는 아동 인터뷰 전후에 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진행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사례관리자 인터뷰와 개입문서를 통하여 전문가가 바라본 가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에서 제시한 질문들은 “너한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해주겠니?”, “그 일을 부모님이 어떻게 아시게 되었니?”, “부모님이 아시고 난 다음 어떻게 하셨니?”, “그 일을 전후로 가족관계가 변화한 것 같니?” 등이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참여자들의 반응에 따라 다시 구체화하여 질문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사례연구에서 자료분석은 전체 사례의 총체적인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사례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될 수도 있다. 사례 내부의 주제와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술, 사례에 따른 주제별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사례의 의미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을 함께 제시하게 된다(Creswell, 2012).

연구대상자를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내용의 녹취록을 분석하는 과정은 연구진 3명이 함께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아동 성학대와 관련하여 전국실태조사, 가족지원모형수립, 성학대 가해자 연구, 성학대 생존경험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아동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녹음한 자료를 녹취록의 형태로 모두 작성한 뒤 3명의 연구자가 녹음한 자료를 듣고

녹취록을 읽고 생각하며 각 사례에 대하여 의미단위를 분석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에도 먼저 인터뷰 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분석하여 연구자 간 논의하며 추가로 필요한 질문을 생각하여 인터뷰에 반영하였다. 각자 분석한 의미단위를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면서 의미단위 분석을 보완하고 관련한 개념을 찾는 과정을 5회 이상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중심으로 다시 범주 합산을 한 후에 주제를 정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의미단위를 기초로 하여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로 묶는 작업을 하였고 이 주제를 포괄하는 상위주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성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와 사례관리자의 인터뷰, 관련 문서는 아동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단위를 찾고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 과정에서 핵심적인 윤리적 이슈는 미성년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것이므로 인터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는 데 노력하였다. 부모와 연락을 할 수 있는 경우 직접 부모에게 인터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후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어머니 중 지체장애를 가진 분이 있었지만, 지적인 기능에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이므로 어머니에게 직접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녹음 및 녹취록은 비밀보장을 위하여 본 연구 이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부모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아동은 보호하고 있는 기관 담당자를 통하여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참여를 원하는 아동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더라도 기관에서 제공 받는 서비스에는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 아동 중 두 명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두 명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성학대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적 개입이 끝난 아동들이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인터뷰 과정 중에 대답하기 곤란해하거나 하기 싫은 경우 질문을 중단하고 다른

화제로 전환하였다. 연구진 중 두 명은 성학대 관련 기관에 슈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고 임상경험이 풍부하여 인터뷰 과정 중에 나타난 피해 아동의 반응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인터뷰할 수 있었다.

5.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질적 연구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엄격성을 확보해야 한다(Lincoln & Guba, 1993). Lincoln과 Guba(1993)는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적 타당도, 외적타당도, 신뢰도, 객관성 등에 대응하는 용어로 신빙성, 적용성, 신뢰성, 확증성을 들었다(서미경, 2010).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Lincoln과 Guba(1993)의 네 가지 차원에서 점검해 보았다. 연구의 신빙성의 차원에서는 자료의 다각화와 동료보고를 연구 검증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심층면접과 함께 사례기록, 사례관리자와 어머니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또한, 공동연구자들과 분석과정에서 연구 관련 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일관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적용성은 연구결과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에 공감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결과가 상이한 배경과 상황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학대 피해 아동들이 가족 안에서 겪는 경험은 각 가족의 특성마다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가족특성이 모두 달라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가족에게 일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성학대 피해 아동이 가족과 관련한 경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여 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네 번째 확증성은 연구의 절차와 분석내용, 결과에 이르는 과정상의 체계성, 엄밀성과 관련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계획하고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기술에 최대한 충실하고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녹취록을 작성하기 전에 녹음을 여러 번 들은 후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녹취록을 충분히 읽으면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참여자 가족 소개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기 위해 각 가족 체계와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A 아동 가족

A 아동의 가족은 부모와 A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장골목에서 생활하였고 동네의 특성상 문을 열어두고 생활하였다. 집안이 매우 지저분하고 생활관리가 되지 않아 초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방임으로 가정에 개입하였다. 성학대 사건 발생 후에는 여관으로 이사하였고 세 식구가 모두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는 일용직근로자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고 청각장애가 있어 아동과의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않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여 집안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를 시킨다고 하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점차 보였다.

2) B 아동 가족

B 아동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와는 연락두절상태이고 아버지는 따로 생활한다. B 아동과 친오빠, 사촌오빠, 친할아버지 4식구가 한집에서 살았고 방은 두 칸이었다. 할아버지와 B 아동이 한방을 사용하였고 사촌오빠가 다른방, 친오빠는 부엌에서 잠을 잤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학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할아버지와 사촌오빠가 주기적으로 성학대를 하였다. 하지만 성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빠나 친오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학교 선생님이 알게 되어 이후 가족에게 분리되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3) C 아동 가족

C 아동의 아버지는 3세 때 사망하여 이후 지체장애 2급인 어머니가 C 아동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체장애 2급이지만 왜소증으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은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취업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며 아동의 집에서 어머니, 남자친구, 아동이 함께 사는 일이 많았다.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함께 사는 방에서 C 아동에 대한 성학대를 하였고 이는 C 아동의 학교 교사를 통하여 받고되었다. 성학대 사건을 알게된 이후에도 어머니는 계속하여 남자친구와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였고 C 아동은 가정에서 분리되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집에 복귀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4) D 아동 가족

D 아동은 부모가 이혼하여 조모, 부,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집에 방은 2개이고 조모가 방하나, 부, D 아동, 여동생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할머니나 여동생과 의사소통은 활발하지 않고 서로 지지가 되지 않고 있다. 주로 방과 후에는 동네 공부방에서 생활하고 평소에도 교회 교리교사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교리교사로부터 성학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학대 사실에 대하여는 아버지만 알게 되었고 할머니나 여동생이 아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건 진행과정에서 교리교사와 합의를 하였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개입이 중지되었다.

2. 주제분석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7가지 주제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경험하였던 가족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아동이 성학대 사건을 경험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성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 있었다.

표 2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 분석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한 가족	대화가 끊긴 가정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가 없음. 따로 사는 부모와는 연락하지 않음.
	의식주는 스스로 해결해야 함	부모와 따로 살고 있음.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아동이 집에 혼자 있음. 식사를 혼자서 해결함. 술 마시는 엄마와 아빠.
	폭력에 대한 잔상	신체학대에 대한 부정적 기억. 부모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모습을 목격함.
	양육능력이 결여된 부모	보호자가 가해자와 아동이 한방에서 지는 것을 개의치 않음. 몇 년 동안 모은 자녀의 저금통을 들고 나간 아빠.
새로운 돌파구 모색	지지자원에 대한 적극 탐색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집을 떠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님. 친구라는 지원군을 얻음.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	최대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임. 할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함.
나보다는 가족을 위한 선택	반복적 학대에 노출되었으나 알릴 수 없음	가족 간 문제가 생길까 봐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꺼림. 가족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꺼림.
가족에게 희망을 걸어봄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람	가족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상처받음.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기 바람. 부모가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함. 지지를 받고 싶음. 위로를 받고 싶음. 가족에 기대고 싶음.
가족의 긍정적 변화	엄마의 관심 표명	엄마가 많은 관심을 가짐. 엄마가 아동과 대화를 시도함.
외판 섬 같은 존재	가족으로부터 고립	컴터에 자주 찾아오지 않음. 가족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어감.
	여전히 지지가 없음	가족에게 밀접한 관계를 느끼지 못함. 대화가 없음.
미래를 위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있음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지켜내야 함	동생을 돌봐야 함. 병약한 엄마를 수발해야 함. 혼자 있는 엄마에 대한 걱정.
	성학대 재발에 대한 두려움	엄마의 남자친구, 사촌오빠와 재회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이 싫음. 가족의 적극적인 보호를 느끼지 못함.

주제별로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한 가족’은 연구참여자 가족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성학대 피해 아동이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음을 반영하였고 ‘새로운 돌과구 모색’은 가족 내에서 안정을 얻지 못해 외부에서 지지를 얻고자 친구와 어울리거나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나보다는 가족을 위한 선택’은 이전의 가족경험에서 기대되는 가족의 반응으로 인해 가족에게 성학대 사건을 말하지 못하는 아동의 모습을, ‘가족에게 희망을 걸어봄’은 성학대 사건을 알게 된 이후 가족이 자신의 편에 서기를 바라는 아동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의 긍정적 변화’는 성학대 사건 이후 가족경험에 따른 아동이 바라본 가족의 변화 수준을, ‘외딴 섬 같은 존재’는 가족 안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족과 교류가 점점 멀어지는 아동의 상황을, ‘미래를 위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은 가족경험에 따라 피해 아동이 가족에게 돌아가는지, 가족에게서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외부에서 생활하게 되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1)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가족

연구참여자의 가족 특성으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한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이들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가족도 있었다.

(1) 대화가 끊긴 가정

대부분 참여자의 가족들은 가족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보호자들은 참여자들이 어떤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 경제적 궁핍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된 노동에 몸이 고달팠던 보호자들은 참여자들과 대화 할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조차 나누지 못했다.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는 연락이 끊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B: 아빠랑 통화는 하는데 엄마랑은 안 해요.

아빠는 설날이나 좀 설 때 왔었어요.

큰 오빠하고 작은 오빠, 할아버지가 트러블이 좀 많이 있었어요.

D: 동생하고 안 친해요. 어찌다 얘기하긴 해요. 할머니, 아빠, 저, 동생 모두 안 친한데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얘기 안 하는데요.

아빠 생일 안 챙겨드려요. 아빠 생일 언제인지 몰라요. 동생 생일은 아는데 안 챙겨 주는데... 할머니하고도 안 친해요. 할머니하고 말벗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2) 의식주는 스스로 해결해야 함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한 가족 외에는 부모의 이혼 및 가출,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 슬하에서 지내거나 조손 가족이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어릴 때부터 자기의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했다.

B: 아빠랑 엄마는 따로 살고 있어요.

C: 엄마는 못 챙겨줘요. 매일 일 나가시고.. 저만 혼자 집에 있고.. 그래서 혼자 밥 먹고 엄마 기다리고..

또한, 함께 사는 경우라도 보호자들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기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경제적인 열악함은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잘 챙겨주지 못할 때가 많았다. 참여자들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식사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회상했다. 주로 혼자서 밥을 먹거나 밖에서 대충 사 먹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여자 아동임에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방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시간 아동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가는 등 아이가 보호자에게 기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엄마가 거의 매일 술 취해서 와요.

어렸을 때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술 먹었다고.

B: 수급자라서 나라에서 돈 주고 저가 복지관에서 용돈 받는 것도 다 할아버지한테 뺏기고 그랬어요.

D: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아빠 있는 데서 옷 갈아입어요. 할머니는 밥을 안 하시고 내가 밥을 하는데 언제부터 밥했는지 기억 안 나요.

(3) 폭력에 대한 잔상

참여자들은 가정폭력을 자주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참여자들은 성학대 사실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신체적 학대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고 알리지 못했다. 이들이 지속해서 받은 신체적 학대는 가해자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했고 내가 잘못해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가해자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게 했다.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무력감은 더 깊이 체득화 되었고 이런 현상이 성학대를 알리지 못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B: 저번에 저가 3학년 땀가 4학년 때 할아버지가 큰오빠 막 때리려고 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쌤한테 전화했어요. 그 쌤이 집에다가 경찰 불러서 경찰 간 다음에 막 할아버지가 너가 신고한 거지? 저한테.. 너가 신고하라고 했지? 그랬었어요

(4) 양육능력이 결여된 부모

참여자들이 가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호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성학대 사건 발생 당시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보호자들은 참여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B 사례의 경우 조부, 사촌오빠, 오빠, 피해 아동이 한집에서 생활했고 조부와 피해 아동은 한 방에 기거했다. 어릴 때부터 조부와 사촌오빠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당했지만 아빠와 오빠는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C 사례의 어머니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딸이 한방에서 잠을 자

는데도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았고 성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아동과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잠을 자는 것을 보호자가 알고 있음에도 아동이 성학대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호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로는 참여자의 아버지는 참여자가 몇 년 동안 한푼 두푼 모아놓은 저금통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 술로 탕진한 경우도 있었다.

C: 엄마하고도 집에 있었어요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 옆에서 잤고 엄마는 그 아저씨 옆에서 잤고.

2) 새로운 돌파구 모색

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에게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거나 가족 공동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경우 외부에서 친구나, 교사, 이웃에게서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받지 못해 외부에 지지를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성학대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집에서 학대를 경험한 뒤 안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친구들과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고 지지자원을 찾고자 애썼다.

(1) 지지자원에 대한 적극 탐색

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주변 이웃들의 비공식적 지지자원을 탐색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성학대를 경험하기도 했다. A 사례의 경우 윗집에 사는 아저씨와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성학대를 당했다. D 사례는 집을 벗어나 잘 아는 교사의 집에서 지내다가 성학대를 경험하였다.

D: 교회 끝나고 교리교사 선생님 집에 놀러 갔어요. 교리교사 선생님 집에서 같은 방에서 자기도 했어요.

(2)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

집안에서 성학대를 경험하는 경우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외부에서 생활하려고 한다. 이웃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방과 후 교실에 오래 머무는 등 아동 스스로 대안을 찾아보게 된다.

B: 저 옛날에 살던 집에 그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 되게 잘해 줬어요. 그래서 전 그 할머니한테 맨날 엄마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3) 나보다는 가족을 위한 선택

참여자들은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성학대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을 하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 망설였다. 그리고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면서도 외부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1) 반복적 학대에 노출되었으나 알릴 수 없음

평소 가족 간 의사소통이 부재한 경우 성학대 사실을 가족이 아는 것이나 가족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부모에게 성학대 사건에 대하여 먼저 아동이 이야기한 경우는 없었고 보호자가 사건을 알게 된 이후에도 다른 가족구성원이 사건에 대하여 아는 것은 싫어하였다. 보호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 보호자가 보호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믿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나타낼 반응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A: 아빠는 이 사건 몰라요.

B: 작은 오빠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 얘기 못 했어요.

C : 그때는 엄마에게 이야기 못 했고 몇일.. 하루 아니면 이틀이 지난 후에..

4) 가족에게 희망을 걸어봄

(1)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람

성학대 사건을 가족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가족이 자신의 편에 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 가족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다. 이후 가족구성원들이 성학대 사건을 알게 되지만 아동의 편에서 가해자의 처벌에 적극적이지 않고 합의를 하거나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 사건에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아이는 처벌을 원하지만, 보호자가 처벌까지 가기보다는 용서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A 아동의 모는 가해자가 장애인인데 그냥 용서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B 사례의 경우 함께 살고 있던 보호자인 조부가 가해자이고 따로 사는 아동의 부는 조부가 가해자란 사실에 적극적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보호하지 않았다. C 사례의 경우 아이는 엄마가 가해자인 엄마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길 바라지만 엄마는 아이가 남자친구를 용서해주어 결혼하고 싶어 하였다. 이 때문에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동이 가해자를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 아동이 어머니가 자기편을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가정과 분리되어 쉼터에서 아동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쉼터에서 아이와 만날 때 합의하도록 서명을 받아 가져가기도 하였다.

성학대 사건으로 가정 내 정서적인 지지를 기대하게 되는 아동은 가족들에게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시 한 번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이 때문에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며 지지체계를 잃게 된다.

C: 아저씨가 교도소에 영영 있었으면 좋겠어요.

5) 가족의 긍정적 변화

(1) 엄마의 관심표명

성학대 사건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피해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보호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에는 가족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어려워 외부에서 정서적 지지를 찾았다면 가족구성원의 태도 변화로 가족 안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 엄마가 제 걱정도 하고 집에도 자주 있어요. 이제는 집에 일찍 가요.

6) 외딴 섬 같은 존재

성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아동이 가족에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기도 하였다. 함께 거주할 때에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가족들은 성학대 사건으로 아동이 따로 거주하는 곳에 자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성학대 사건을 부모 외에 가족구성원이 아는 것을 꺼려하여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대화가 더 줄어들기도 하였다.

(1) 가족으로부터 고립

성학대 사건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건 이후에도 참여자들은 주변 가족원들로부터 살갑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성학대 사건 발고이후 가족들로부터 관심받기를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원망을 듣게 되면서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이전보다 더 가족의 고립을 경험하기도 했다.

C: 내가 사건 이후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하기도 했고.

(2) 여전히 지지가 없음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쉼터생활을 선택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가족과 분리되어 쉼터 생활을 선택했지만, 쉼터를 찾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참여자들은 자신을 가족 내 외딴 섬처럼 느꼈다.

C: 엄마 보고 싶단 생각도 가끔 하고 귀가하고 싶은 생각도 하고..

7) 미래를 위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

참여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족과의 관계양상에 따라 집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해자를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경우 집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싶어 한다. 가해자가 친족이 아닌 경우 가족의 보호가 안정적이면 가족과 함께 계속 생활하게 된다.

(1)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지켜내야 함

가해자가 외부인인 경우 가족이 성학대 사건 이후 피해 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게 되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의 피해자녀인 경우 자신이 없으면 보호자가 혼자 있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염려를 하였다. 자신의 성학대 사건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성학대 발생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엄마의 역할을 대신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조부모에 대한 돌봄, 사촌에 대한 돌봄도 감당해야 했다. 엄마의 역할에 익숙해진 참여자들은 성학대 사건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가족 내 위기가 고조될까 봐 속으로 삭였고 드러내지 못했다.

B: 할아버지가 술 마시면 데리러 오라고 연락 와요. 데리러 가지 않으면 혼나요.

C: 엄마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일하는 방도 있고..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엄마가 아픈 거예요.

D: 고모가 일하셔서 사촌 동생들 밥을 차려줬어요.

(2) 성학대 재발에 대한 두려움

성학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참여자들의 삶이 나아진 것은 크게 없었다. 성학대 사건 이후에도 삶에 찌들어 있던 가족의 모습은 여전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성학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집에서 벗어나 생활하기를 원했지만, 외부의 도움을 구하기 어려웠다.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힘들거나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경우 아동은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게 된다. 사건 발생 후 아동에 대한 보호나 치료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없는 경우 아동을 가족과 분리하여야 하므로 보호자가 기관의 사례관리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적극적인 보호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그리워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성학대가 발생했던 공간인 집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한다. 근친 성학대인 경우 가해자가 계속 같이 살게 되거나 비근친 이더라도 가까운 이웃에 의한 성학대인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B: 여기서 나가면 중학교때는 그룹홈 같은데 가고 싶어요. 나중에 커서 작은오피스랑 둘 만 같이 살거예요.

C: 아저씨가 집에 오는 것이 싫어요.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학대 피해 아동 4명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하였고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과정에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가 된다(Padgett, 1988). 자료수집에서 무엇보다 성학대 피해아동과의 면접에 앞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고 아동이 편안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다가 본인이 이야기하기 싫은 주제가 나오는 경우 주제를 바꾸거나 얼굴을 책상에 묻는 등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면접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분석과정에서는 판단중지를 통하여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해를 해소(Glesne, 2010)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분석에 있어 연구자 간 서로 분석에 대하

여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분석자가 같더라도 편견과 선이해가 분석에 반영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각 가족의 체계와 특성을 소개하였고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전체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주제들을 찾아 범주화하고 분석, 해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로 나타난 주제는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한 가족’, ‘새로운 돌파구 모색’, ‘나보다는 가족을 위한 선택’, ‘가족에게 희망을 걸어봄’, ‘가족의 긍정적 변화’, ‘외딴 섬 같은 존재’, ‘미래를 위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가 바라본 가족은 대부분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였고 다른 가족구성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모호한 가족관계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엄마의 역할을 요구되기도 하는 등 성인 아이의 특성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에서 받지 못한 지지와 안정을 찾기 위해 외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 과정에서 성학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학대를 경험하고 난 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리거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강했다. 가족구성원은 성학대 사건의 발생 이후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아동에게 관심을 두고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 아동에 대한 지지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주로 외부인으로부터 성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가족들의 지지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가족 내부에서 성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에 따라 성학대 피해 아동은 가족을 지켜내기 위하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단행하기도 했으며 성학대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에서 벗어나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기도 했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성학대 발생과정에서 보호자의 부재, 가족구성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지지와 안정을 외부에서 찾음 등은 부모의 맞벌이로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이미화, 1999), 빈곤(장화정 외, 2000; MacMillana et al., 2013), 갈등적 가정 분위기, 부모학력 및 결혼가정(안선경 외, 2012)에서 성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과 일치된다. 성학대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아동에게 관심을 두고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아동이 가정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가해자가 비친족인 경우였다. 여전히 피해 아동에 대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는 경우는 가해자가 모의 남자친구나 조부, 사촌오빠로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고 다른 가족구성원이 피해 아동보다 가해자 편을 들어 피해 아동은 쉼터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비친족인 경우보다 가족들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박현지, 2001)와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족은 성학대 피해 아동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후 생활을 지속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체계이다. 그러므로 성학대 피해 아동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개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성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가정은 양육의 부재 현상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 부재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구조형태로 야기된 사회 환경적 스트레스가 작용한 것으로 이 때문에 자녀에게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는 방임환경으로 이어졌다. 아이에 대한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정에서 성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러한 가정은 발생 이후에도 아이 스스로 보호자에게 지지를 기대하지 못하여 가족구성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알려진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빈곤가정의 학대 및 방임 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가족에 대한 조기발굴과 개입을 위해 outreach 서비스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학대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한 개입에서 학대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가족환경의 특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동을 둘러싼 가족특성, 가족기능, 구성원의 역할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빈곤은 성학대 피해 가족경험 중 주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므로 빈곤층과 중산층을 비교함으로써 소득뿐만 아니라 양육환경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성학대 피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학대 발생 후 피해 아동은 가족에게 성학대 사건에 대해 알리기를 꺼렸다. 이는 성학대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만든 가족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아동이 부모에게 성학대 경험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가족 간 의사소통이 부재하고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자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에서 아동에 대한 개입과 함께 가족이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이 자신 스스로 성적 결정권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성학대 이후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성학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가족들은 피해자인 아동의 입장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근거는 가족들이 가해자의 물리적, 경제적 권위에 복종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동 입장을 우선하여 고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아동이 가족과 분리하여 생활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워 가족과 분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이 가족과 분리하여 생활하는 것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에 다시 복귀하게 될 경우 집에서 아동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아동이 가족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문제를 치유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는 환경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성인 아이 특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두려워하여 반복적인 학대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덮어두거나 발고하기를 꺼렸다. 실천현장에서는 성학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가족의 이슈를 다룰 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성학대 피해 아동에 관한 연구는 양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성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을 살펴보고 가족에 관한 질적 연구는 주로 성학대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성인생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에 대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가족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점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가해자가 근친인 경우와 비근친인 경우를 함께 분석하였는데 가해자가 근친인 경우와 비근친인 경우에 따라 가족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가해자의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김경민 (2008). **위탁아동의 친가족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신, 김준경, 여인숙 (2012). 시설아동의 애착경험과 자아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 중심으로. **정서·학습장애연구**, 28(4), 381-402.
- 남순열, 심창교, 이희숙, 조중신 (2004). **통합과 회복을 향한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 상담매뉴얼**. 서울: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박아경 (2008). **성학대 피해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지 (2001).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지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숙 (2013). 아동 성학대의 실태와 대책: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의 보고를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9(1), 169-193.
- 박혜영, 김연옥, 홍강의 (1996). 근친강간의 유형과 가족 역동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1), 23-33.
- 서미경 (2010). **중고령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8, 331-358.
- 유가효, 남정임 (1995). 아동 성학대의 실태와 관련변인: 지방대도시 청년기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3(5), 221-239.
- 유수진 (2003). **아동기 성학대가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학대 특성, 대처방법, 부모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혜미 (2010). 아동 성학대 연구 경향: 2000~2008년에 발표된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2, 129-160.
- 이경남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

- 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 이경은, 김미정 (2011) 성학대 피해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6, 197-230.
- 이근무, 김진숙 (2010).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09-134.
- 이미화 (1999). 빈곤 가정과 청소년. **도시와 빈곤**, 36, 17-20.
- 이원숙 (199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개입에서의 성폭력피해 가족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 107-140.
-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가정 내 위기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4(2), 125-138.
- 전귀연, 최보가 (1995).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7.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채규만 (2004). **성피해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한인영, 박명숙, 유서구, 류소영 (2008). 아동청소년 성학대 피해증상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5(1), 327-356.
- 한인영, 이용우, 유서구, 박명숙, 김진숙 (2008). 아동기 성학대 발생과 배경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2), 131-153.
- Agnew, R., Matthews, S. K., Bucher, J., Welcher, A. R., & Keyes, C. (2008). Socioeconomic status economic problems,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40(2), 159-181.
- Bagley, C., & Ramsay, R. (1985). Sexual abuse in childhood: Psychosocial outcome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 Human Sexuality*, 4(1-2), 33-47.
- Benedict, L., & Zautra, A. (1993). Famil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risk factors for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3), 365-374.
- Black, D. A., Heyman, R. E., & Slep, A. M. (2001). Risk factors for child sexual abus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2-3), 203-229.

- Burge, S. K. (1983). Rape: Individual and family reactions. *Stress and the Family*, 2, 103-119.
- Burgess, A. W., & Holmstrom, L. L. (1979). Adaptive strategies and recovery from rap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10), 1278-1282.
- Burkett, L. P. (1991). Parenting behaviors of women who were sexually abused as children in their families of origin. *Family Process*, 30(4), 421-434.
- Clements, P. T., Speck, P. M., Crane, P. A., & Faulkner, M. J. (2004). Issues and dynamics of sexually assaulted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13(4), 267-274.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Los Angeles: Sage.
- Fleming, J., Mullen, P., & Bammer, G. (1997). A study of potential risk factors for sexual abuse in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21(1), 49-58.
- Glesne, C. (2010).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4th ed.). Boston: Pearson.
- Goodwin, J. (1988). Post-traumatic symptoms in abused childre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 475-488.
- Kendall-Tackett, K. A., Williams, L. M., & Finkelhor, D. (1993).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164.
- Lewin, L., & Bergin, C. (2001). Attachment behaviors, depression and anxiety in nonoffending mothers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Child Maltreatment*, 6(4), 365-375.
- Lincoln, Y. S., & Guba, E. G. (1993).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Sage.
- MacMillana, H. L., Tanaka, M., Duku, E., Vaillancourt, T., & Boyle, M. H. (2013). Chil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a community sample of young adults: Results from the Ontario child health study. *Child Abuse & Neglect*, 37(1), 14-21.
- Maniglio, R. (2012). Child sexual abuse in the etiology of anxiety disorders:

- A systematic review of reviews. *Trauma, Violence & Abuse*, 14(2), 96-112.
- McLoyd, V. C., Jayaratne, T. E., Ceba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2), 562-589.
- Meyerson, L. A., Long, P. L., Miranda, R. J., & Marx, B. P. (2002). The influence of childhood sexual abuse, physical abuse, family environment and gender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6(4), 387-405.
- Paavilainen, E., Astedt-Kurki, P., Paunonen-Ilmonen, M., & Laippala, P. (2001). Risk factors of child maltreatment within the family: Towards a knowledgeable base of family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8(3), 297-303.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Beverly Hills, Calif: Sage.
- Pilgrim, N. A., Saifuddin, A., Gray, R. H., Joseph, S., Tom L., Nalugoda, F. K. et al. (2012). Sexual coercion among adolescent women in Rakai, Uganda: Does family structure m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6), 1289-1313.
- Rasmussen, L. A. (2013). Young people who sexually abuse: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2(1), 119-141.
- Thurston, S. C. (2005). *An exploration of family interactions and male juvenile sexual offending: A qualitative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Texas, USA.
- White, M. A., Grzankowski, J., Paavilainen, E., Astedt-Kurki, P., & Paunonen-Ilmonen, M. (2003). Family dynamics and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ree Finnish communitie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4(6-7), 707-722.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 Thousand Oaks, CA: Sage.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into the experience of sexually abused children in the family*

Han, Inyoung** · Kim, Jinsook*** · Moon, Hyu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tter understand the family experience of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To achieve this research aim, the current researchers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4 sexually abused children from July, 2012, to June, 2013. The analysis was based on a qualitative case study. The results produced the following insights or categorization of experiences and impacts; 'The family does not fence', 'To seek a new breakthrough', 'Making a choice for the family rather than for me', 'Have hope within the family', 'A positive change in the family', 'Existence is like isolated islands', 'Making a choice for the future at a crossroads'. Based on this, we proposed a number of ideas in terms of intervention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Key Words : sexually abused children, family experience, qualitative case study

투고일 : 2014. 3. 10, 심사일 : 2014. 8. 11, 심사완료일 : 2014. 8. 12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2S1A5A2A01017275).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kjs324@daum.net)

**** PhD Candidate,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